

사라에 비치는 관세음보살 '눈길'

강인영의 '은혜를 그리다' 전

“불화는 아무래도 불교신자라 해도 집에 두기가 쉽지 않아요. 벽에 건다는 느낌보다는 모신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걸 수 있는 불화로 표현을 해 봤어요. 나무에 걸은 칠을 해서 이미지를 단순화한 그림으로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삼청동 스페이스선+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6일~19일 강인영의 '은혜를 그리다'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나무판을 이용한 달라이 라마, 승무, 은혜 등 회화 불화를 재해석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고려 회화에서 볼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흰색 사리를 통해 대상을 감싸는 듯한 표현법은 신비롭고 독특한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감싸안아주는 보살이잖아요. 불교회화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예배를 하고 승무를 추고 일상생활을 보내는 도중에 사라가 내려와 그림을 덮어 감싸는 이미지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을 받고 의지하는 동심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임을 의미합니다.”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불교미술과 타투 작업물도 함께 전시한다. “타투는 또 하나의 예술로 인정을 받는 기로에 서있는 문화입니다. 종교예술처럼 고귀하여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급하여 멀리하는 것이 타투입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기 위한 타투작업들도 함께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타투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닌 나의 일부이며,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짐이 되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수행입니다.”

또한 불교미술을 이용한 염서와 스티커 커스텀 디자인한 모자와 티셔츠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강인영 작가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고 2011년 타투 아티스트로 입문했다. 스페이스 선 한·독 불교미술 사회 기획전 참여, 2013 코리아 타투 페스티벌에 참여한 바 있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6일~19일 강인영의 '은혜를 그리다' 전이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열린다. 작품은 왼쪽부터 '승무',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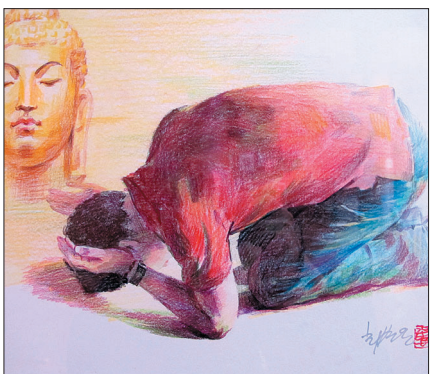
최병용 작가 '인도 성지순례 기념전'

5월9일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사, 인도성지순례 기념 그림 전시회”가 5월 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최병용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한 84명 순례단의 성지순례 현장과 표정을 기록한 그림을 전시한다.

조계사 성지순례단과 함께한 최 작가는 불교 8대 성지와 엘로라 아잔타 석굴 등에서 만난 순례객들의 얼굴과 그 현장으로 표현했다.

〈불교문화와 상식〉〈फल대장경에 숨어 있는 참 향기로운 이야기〉등을 출판하며 만화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용 작가는 현장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이웃



최병용 작가의 '인도 성지 순례전' 작품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02)768-8600 정혜숙 기자

성지·수행·음성공양... 부처님 만나다

2014년 봉축 프로그램 다채

201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수행음식의 전파를 알아보는 KBS다큐공감의 '부처님의 밥상'에서부터 BTN의 '한국의 삼보종찰', 불교방송은 특집생방송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EBS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해줄 것이다.

KBS1TV '다큐공감'은 부처님오신날 기획 2부작 '부처의 밥상'을 마련했다. '부처의 밥상'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전파경로에 따라, 수행음식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최고의 밥상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아시아 불교문화와 수행음식의 변천을 통한 부처의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한다. '모든 음식은 약'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도와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수행음식을 살펴본다. 5월 6일 10시 50분 방송.

BTN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한국의 삼보종찰'은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를 불법승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의 삼보종찰을 조명한다. 방송은 5월 6일 오전 7시 30분, 5월 7일 오후 1시·9일 오후 8시. 이밖에도 '4형제 스님' 한집안에서 출가한 4형제 명분, 법성, 금강, 붓다빠라스님의 4형제 출가이야기를 살펴본다. 5월 6일 9시 40분·7일 12시 30분.

불교 8대 성지를 돌며 정진기도를 올리는 인도성지순례기 '홍법사 천축국전'은 5월 5일 오후 5시·6일 오후 1시·8일 오전 11시 30분. 중국에 남아 있는 선불교의 자취와 풍광을 체험해보는 '선(禪)의 원류를 찾아서'는 5월 6일 9시 30분·7일 오후 7

시 30분·9일 오후 12시 30분. 불교방송은 특집생방송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박범훈의 목소리 찬불가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인류의 스승, 붓다의 탄생' 등을 방송한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생방송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은 4부작으로 구성 5월 6일 오후 12시 10분부터 3시 45분까지 방송된다.

전국 주요사찰을 연결해 부처님오신날 모습을 살펴보고 세월호 침몰사고로 침체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불자대상을 받은 탤런트 선우용녀 씨 등 불자 연예인들을 연결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소감을 들어본다.

KBS1 '다큐공감-부처의 밥상'

BTN-한국의 삼보종찰

불교방송-생방송 '오늘은...'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첫날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진도 향적사 법일 스님을 비롯 비구니회 임대 스님들과 전화연결을 통해 현장 소식과 더불어 현지의 부처님오신날 소식도 들어본다.

'인류의 스승, 붓다의 탄생'은 5월 6일 오전 9시 방송된다. 다양한 찬불가와 함께, 롬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부처님의 탄생을 되짚어 보면서 관불의식의 의미와 탄생계, 등을 밝히는 연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EBS는 쓰리디렉터체널(주)가 제작한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를 5월 6일 오후 7시50분 방송한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자진흥회의 콘텐츠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는



201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EBS와 BTN에서 방송되는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



KBS1TV '다큐공감' '부처의 밥상'



BTN 인도성지순례기 '홍법사 천축국전'

방송사별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방송사	날짜	프로그램명	시각
KBS1TV	5월 6일	다큐공감 부처의 밥상	오후 10시 50분
	5월 6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불교음악페스티벌	시간미정
	5월 6일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	7시 50분
EBS	5월 6일	석가탄신일 특집 영화 '만다라'	밤 12시 10분
	5월 7일	한국의 삼보종찰	오후 1시
BTN	5월 6일	4형제스님	오후 8시 40분
	5월 6일	홍법사 천축국전	오후 9시
	5월 7일	선(禪)의 원류를 찾아서 오후	오후 7시 30분
	5월 7일	자비와 광명을 온누리예-대풍스님	오후 3시
	5월 6일	봉축법요식	오후 10시
불교방송	5월 6일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	오후 7시 30분
	5월 6일	무명을 밝히고	오후 5시 5분
	5월 6일	인류의 스승, 붓다의 탄생	오후 9시
	5월 6일	봉축법요식	오후 10시
	5월 6일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1-4부)	오후 12시 10분
5월 6일	박범훈의 목소리 찬불가 1-2부	오후 7시	

과거 인도네시아의 불교국가 사일렌드라 왕국에 의해 8세기경 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를 조명했다. '산위에 잘'이라는 뜻으로 단일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세기의 불가사로 손꼽히는 보로부두르, 신심이 만들어 낸 불교유적의 결정체를 보여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5월에 보는 연극 '푸르른 날에'

남산예술센터서 6월 8일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산 스님의 시선으로 다룬 연극 '푸르른 날에'가 6월 8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림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정경진 작, 고선웅 각색·연출의 '푸르른 날에'는 2011년 남산예술센터에서의 초연 당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그해 '대한민국 연극대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 등 각종 연극상을 휩쓴 바 있다.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재공연에서도 연속 전석매진이라

는 기록을 세운 이 작품은 '5월이면 꼭 봐야 하는 연극'으로 인식될 정도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14년에도 여김없이 5월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다.

'푸르른 날에'가 관객들의 각별한 애정을 받아온 데는 단순히 '광주의 아픔'을 토로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날' 이후 살아남은 자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따뜻하게 그려내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푸르른 날에'는 제3회 차범석희곡상 수상작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속에서 꽃핀 남녀의 사랑과 그 후 30여 년의 인생 역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산 스님의 시선으로 본 연극 '푸르른 날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이후의 이야기다.

정을 구도(求道)와 다도(茶道)의 정신으로 녹여냈다. 이 작품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 연출가 고선웅(46)의 각색을 거쳐 연극 '푸르른 날에'로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 공연 직후인 6월 중순

극의 배경인 광주에서도 공연도 이어진다. 남산예술센터, 신시컴퍼니, 인터파크 예매 사이트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전석 2만5천원이며 청소년 및 대학생은 1만8천원이다. (02)758-2150 정혜숙 기자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이 사람아!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ong.co.kr / E-MAIL : sungjongsong@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중요유형문화재 제 112호·대한민국 명장)

성종사